

5·18 삼보일배... 일해공원 반대 경남대책위 강선희 위원장



## “학살 원흉 공원 조성, 역사에 큰 죄”

‘전두환(일해)공원반대 경남대책위’의 강선희(여·38·사진) 집행위원장은 20일 오후 2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 광주은행 구 본점 앞에서 옛 전남도청 앞 광장까지 회원 40여명과 함께 ‘삼보일배(三步一拜)’를 하면서 “죄송

하다”라는 말을 연신 되풀이했다. 대책위는 지난 2월 결성된 ‘전두환공원 반대 전국대책위’(공동대표 오종렬)와 연대해 ▲일해 명칭 안 쓰기 운동 ▲한나라당 소속의 심의조 합천군수 징계 요구 ▲전두환(일해) 공원 같은 역사왜곡 막는 올바른 기억 확립을 위한 법률 제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반대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경남 합천군은 지난 1월 ‘일해공원’으로 명칭을 확정 발표한 데 이어 오는

7월 ‘일해공원 명명식’을 열려고 하는 등 일해공원 조성을 강행하고 있다. 강 집행위원장은 “어제(19일) 회원 몇 사람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5월 민주영령들을 참배하면서도 불빛이 없어 고개를 들지 못했다”며 “학살 원흉을 기려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유대인 대학살 등의 홀로코스트 부정행위와 전쟁범죄를 두둔하거나 전쟁을 선포하는 행위를 범죄행위로 보고 처벌하고 있는 것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전남대 법학과 이재승 교수를 주축으로 전쟁범죄·인도에 관한 범죄·헌정질서 파괴범죄 등 중대한 인권 유린행위를 부정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올바른 기억 확립을 위한 법률’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강 위원장은 설명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도 6월 10일 이전에 국회의원사위원을 구성해 일해공원 명칭 제정과 관련한 불법 행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남지역 시민단체 회원 등이 20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전두환(일해)공원 반대”를 외치며 삼보일배(三步一拜)를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

그는 “지자체와 지방의 호호세력들이 자신들의 그릇된 역사적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역사를 되돌리려고 하고 있다”며 “직접적인 행동이나 반대 목소리를 아무리 높여도 들지 않는 만큼 앞으로는 법적으로 맞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독일을 비롯한 10여 개 이상 국가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하리수, 래퍼 미키정과 웨딩마치

연기자 겸 가수 하리수(32)가 래퍼 미키정(본명 정영진·27)과 웨딩 마치를 올렸다. 하리수는 19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센트럴시티 밀레니엄홀에서 미키정과 백엔더 가약을 맺어 트랜스젠더 연예인으로서 성공에 결연에까지 끝낸 첫 스타가 됐다.



이날 결혼식은 KBS 신영일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주례는 1995년 하리수의 성전환 수술을 집도한 동아대학교 김석권 교수(대 성형외과)가 맡아 눈길을 끌었다. 신혼여행은 하리수가 가족 여행을 제언해 20일 양가 부모가 동행한 채 태국 코사무리로 떠났다. 신접 살림은 하리수가 현재 살고있는 서울 논현동 집에 차린다. 이들은 차례로 아이를 입양해 총 네 자녀의 부모가 되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히딩크 ‘자서전’ 네덜란드서 큰 인기

한국 축구의 월드컵 4강 신화를 일궈낸 거스 히딩크 러시아 대표팀 감독이 지난해 출간한 자서전 ‘히딩크, 이것이 나의 세상이네’ 네덜란드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네덜란드 유력 신문 ‘알헤메네 다흐 블라드’는 20일(한국시간) “히딩크 감독의 자서전이 지난달 판매부수 6위를 기록한데 이어 이번 달에도 계속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스포츠 관련 서적 분야에서는 3개월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세계적 명장 반열에 오른 히딩크 감독이 자신의 인생을 과장없이 표현하고 있어 독자들이 반하고 있다”며 자서전 인기 원인을 분석했다.



한국스카우트 광주연맹 ‘스카우트 대축제’



한국스카우트 광주연맹은 20일 오전 금호패밀리랜드에서 ‘더 나은 세상 만들기’라는 주제로 ‘2007 스카우트 대축제’ 행사를 개최했다. /위직림기자 jrwi@kwangju.co.kr

한국도시설계학회 광주·전남지회 출범



(사) 한국도시설계학회 광주·전남지회(지회장 조유준 조순대교수)는 지난 18일 오후 광주시청 3층 회의실에서 창립 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박찬욱, 세계 명감독 연열 11명과 ‘뉴욕’ 공동 연출



박찬욱 감독이 세계적인 명감독들과 함께 올니버설 영화 프로젝트 ‘사랑해, 뉴욕’에 참여한다. 할리우드리프터는 20일 “‘사랑해, 파리’의 제작자 테미뉴엘 벤비리가 차기작 ‘사랑해, 뉴욕’(New York, je t'aime)의 공동 연출자로 박찬욱 감독을 비롯해 잭 브라코, 미라 네어, 파티 아긴 등을 모았다”고 보도했다. 모호필름의 관계자는 “박 감독이 연출의뢰를 받아 아이를 수락했으며 구체적인 촬영 일정 등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허창수 GS 그룹 회장 美 세인트루이스대 명예박사



허창수(사진 오른쪽) GS 회장은 19일 미국 세인트루이스 대학에서 명예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GS측이 20일 밝혔다. 1977년 이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MBA)를 마친 허 회장은 계열 분리된 GS를 조기에 안착시키고 이사회 중심의 성공적인 지주회사 체제를 운영하는 등의 ‘역량’을 인정받아 학위를 받게 됐다고 GS측은 설명했다.

사진작가 임영균 교수, 英 박물관서 백남준 추모 사진전

사진작가 임영균(51·중앙대 사진학과 교수)씨가 런던 영국박물관 한국실 로비 갤러리에서 백남준 추모 사진작품전을 열고 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비디오아티스트로 백남준씨의 판화 8점과 함께 임 교수가 1980년대 뉴욕에서 찍은 백남준 선생과 작품 사진 4점이 영국박물관 벽에 걸려 있다. 과거 유물들을 전시하는 영국박물관에서 현대 작가의 작품전이 열리는 드문 일이다. 영국박물관의 초청을 받아 18일 작품 설명회를 한 임 교수는 백남준씨에 대해

“너무나 단순하고 순수무구한 분”이라며 “보통 사람들의 머리로만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상상력을 지닌 천재였다”고 기억했다. 임 교수는 1982년 뉴욕 휘트니미술관 백남준 전시회 때부터 2000년까지 20여 년 동안 백서를 자주 만났고 친하게 지내면서 사진을 찍었다. 백서가 세상을 떠난 후 임 교수는 작년 9월 뉴욕의 2×13 갤러리에서 백남준 추모 사진전을 열었고, 작품 사진 중 42 점을 골라 추모 사진집도 냈다. 이번 영국박물관 전시회에는 1984년

1월 1일 뉴욕타임스 일요판에 실린 임 교수의 출세작 ‘텔레비전 모니터 속 백남준’ 사진이 전시되고 있다. 백씨의 설치작품 ‘TV 부처’와 퍼포먼스 ‘TV를 연주하는 헬리스트 살라 무어먼’, 1986년 아시아올림픽을 기념한 퍼포먼스 ‘바이 바이 키플링’을 담은 사진도 선보인다. “세계적인 사진작가들과 작업했지만, 임 선생처럼 내 맘에 들게 찍은 사람은 없었다”고 백남준씨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임 교수는 “인물 사진은 찍기 전에 그 사람을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뢰받고 행복 주는 사회 단체 만들 것”

신임 ‘행복발전소’ 정재훈 이사장



시민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로 지역민에게 행복을 주자는 모임인 ‘광주전남행복발전소’가 광주 동아병원 정재훈(50)원장을 새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정 이사장은 “시민들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는 것 자체가 행복이다”며 “가장 신뢰받고 행복을 주는 사회 단체인 행복발전소”라며 “상업·사무실 확장·사업, 길거리의 배달 음식 빈 그릇 포장지 배포, 여성 전용 택시·대리운전 운영, 버스·택시 내에 쓰레기 봉투 배치 등을 주력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여성들이 택시와 대리운전 운전자의 신뢰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 중이며, 사무실과 상업에서 화장실을 개방하면 화장지 등 비품을 지원해 줄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생각이 지역에 큰 행복을 안겨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와 남구의사회 회장과 광주전남개혁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100원회, 중·고·대학생 65명에 장학금



하루 100원씩 모아 이웃을 돕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100원회’는 20일 오전 광주시 서구 서창동협 회의실에서 ‘2007년 정기 총회 및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광주·전남지역 중·고·대학생 65명에게 1천14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은 전남대학교 4학년 이은경씨 등 대학생 11명과 광주시 두암중 3학년

이승배군 등 중·고교생 54명에 전달됐다. 100원회는 1999년 발족해 현재 전국 광주시 서구 서창동협 회의실에서 ‘2007년 정기 총회 및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광주·전남지역 중·고·대학생 65명에게 1천14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은 전남대학교 4학년 이은경씨 등 대학생 11명과 광주시 두암중 3학년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 학측

**김기영씨(KT건설주) 대표이사 장남 정훈군 이원혜씨(광주일보무인주제기자) 장녀 리라양**

- 일 시: 5월 26일(토) 낮 12시
- 장 소: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2층 웨딩홀
- 피로연: 5월 22일(토) 오전 11시 무인당 동남호텔

▲김영호(다나기업 대표)씨 장남 경두(동부건설)군 이옥남(전 전남대 사범대 교수)씨 장녀 유진(중앙중교사)양=26일(토) 오전 11시30분 에블루선웨이컨벤션 2층 라벤더홀.  
▲진동택씨 장남 준(화순군 이양면 보건지소장)군 최희주(영광군 보건지소장)씨 장녀 은영(송정 서초고교사)양=26일(토) 오전 11시50분 오페라하우스 오페라홀.  
▲나창균씨 차남 준승군 손태열(영암군 건설재난과장)씨 딸 혜진양

=26일(토) 오전 11시50분 광주 에블루선웨이컨벤션 3층 컨벤션홀, 피로연 22일(화) 영암읍 동락회관.  
▲백남인(백광사 대표)씨 3남 재민(CJ 부장)군 신홍(전 우체국장)씨 차녀 정아(경기 송추고교사)양=26일(토) 오후 1시 상록회관 3층 무궁화홀.  
▲김강철씨 장남 현진(취태준건설 부장)군 서정기씨 차녀 은미(금호초교 교사)양=26일(토) 오후 1시 30분 리더스클럽 3층 다이아몬드홀.  
▲정태성(전남대 행정대학원)씨 장남 종식군 이현근(전남도 교육청 공보실)씨 장녀 우경양=27일(일) 오후 1시50분 상록회관 3층 무궁화홀.  
▲심연영씨 장남 성훈군 정사관(KBS 광주방송총국 보도국)씨 장녀 소영양=27일(일) 오후 3시 KBS 신관 1층 공개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 권상담=월~금 오전9시~오후5시, 국번 없이 1331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용 사용할 경우 062-1366.  
▲(사)이주가족복지회 긴급지원 및 상담=동남아 결혼이민자나 가족들 대상으로 상담 및 문화강좌, 363-2963, www.ejfamily.com 문화강좌는 월·금 오전 10시~낮 12시, 수 오전 10시~오후 3시(점심 제공)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 부 무료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자 관리 실시=직장인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규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연보조제 및 상담.문의 363-2240  
▲호남해바라기 아동센터 무료 상담 및 의료·법률지원=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및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의 료·법률지원 및 심리 치료 등 One Stop 서비스. 232-1375, http://forchild.or.kr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아동상담소 무료 상담=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24시간 출장 상담도 가능). 미혼모 시설 입소 안내. 227-8877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문의 652-1366, 434-1366 www.gene-korea.com  
▲광주생명의 전화 무료 상담= 24시 전화 상담 전국 공통 1588-9191, 광주 223-9191. 면접 상담은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상담을 통한 정서적 지지와 격려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법 검찰청 민원실 2층.

▲(사)국제제제협회 광주서부지 부 외국인 여성 위한 한글학교 운영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 (점심 제공). 한글 교육 및 한국문화 이해 프로그램, 요리 강습을 통한 건강 및 음식 문화 이해 등. 382-3004  
**동창·동문회**  
▲비아초고 동문회(회장 김익중) 월례회=22일(화) 오후 7시 한우촌, 526-2737  
▲재광 발달 35회 동창회(회장 김군재) 모임=22일(화) 오후 6시 제주물향회관. 233-1950  
▲조대부고 20회 동창회 모임=23일(수) 오후 7시 화랑궁회관, 223-7370  
▲재광 벌교 낙성초고 25회 동창회(회장 신철우) 모임=24일(목) 오후 6시 522-5290  
▲전남공고 총동문 체육대회=27일(일) 오전 9시 모교운동장. 521-5327  
**모임**  
▲제 4기 전남도지원 남도문화유

산해설사 양성교육생 모집=21일부터 3개월간. 매주 월·목·금 오후 7시~9시, 월 3회 현장학습. 문의 461-1500  
▲장애인 차량봉사=장애인 차량 봉사 동행 서비스. 장거리 광주지원 (담양·나주·화순) 등 2~3일전 예약시 가능. 0505-206-0106  
▲Philo통기타 동호회=40세 이상 남녀, 매월 1회 정기발표회, 초보자도 가능 019-660-3388  
▲푸른학당 =오전반(검정고시반·초등과정), 오후반(초등반·기초영어반), 야간반(초등반·중등반·고등반) 광주교육대 맞은편 2층 529-1188  
**모임**  
▲제 4기 전남도지원 남도문화유

광주에서 30분 아름다운 청계공원  
**기적남묘특별분양**  
분양 (062) 521-1100